

3월28일(월)/고후 11:1~15

제목: 불순한 의도의 사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꼬집었다.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갔다(3~4절). 그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보다 말은 잘 할 수 있으나 자기는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5~6절). 계속해서 그는 자기를 오해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부득불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 그는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 사례비 지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8~10절). 그는 거짓 사도들의 실상을 고하는 데 힘을 썼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들도 자기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다(13~15절).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일체의 사례비를 거절했다.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망받을 것이 많은 그들에게 그는 현명하게 처신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목회자에게 순수한 마음이 아닌 불순한 의도로 사례하는 경우가 있다.

3월29일(화)/고후 11:16~33

제목: 복음 때문에 약자가 되어보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 비꼬았다(19절). 그는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 업신여기고, 착취하고, 뺨을 쳐도 참아주는데,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은 못하겠다’ 고 하였다(20~21절). 그는 이 시점에서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21절). 자기도 거짓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였다(22~23절). 자기가 하는 일의 양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동안 복음 때문에 39대의 매를 다섯 번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 세 번 좌선하였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비와 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여러 번 뜯은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여러 번 기근과 갈증과 추위에 떨었으며,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교회 생각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으며, 심지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탈출하는 사례까지도 있었다고 하였다(23~33절).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이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30절).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약자가 되어본 적이, 손해 본 적이 있는가?

3월30일(수)/고후 12:1~10

제목: 공평하신 하나님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가 황홀한 체험을 하였던 것을 편지에 적었다. 그의 영이 그의 몸을 빠져나가 낙원에 도달하였으며 거기서 여러 광경을 목격하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2~4절). 그 후에 그에게 고뇌가 찾아왔다. 그는 그 고뇌를 ‘육체의 가지 사탄의 사자’ 라고 표현했다(7절). 그는 간절히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다(8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단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9절)고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동안 너무 충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할 정도로 받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전무후무하게도 천국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 기도마저 응답받았다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만심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7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쯤의 고통은 참고 가며, 그것을 통해서 그가 더 강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적게 받았다고 생각되면 장차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해도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 장차 우리가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3월31일(목)/고후 12:11~13

제목: 넉넉한 은혜

바울은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고린도교인들이라고 하였다(11절). 그는 먼저 자칭 자기들이 특출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에 비해 전혀 못한 것이 없음을 밝혔다(11절).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표징과 기적들을 보여주었고 교회에 폐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2~13절). 바울은 쑥스럽지만 이렇게까지 자기를 알리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불신은 괜찮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불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흥분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들의 불신과 조롱에 맞서 차분히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 바울은 그 생애 중에 많은 반대자들과 대결했지만 굴복한 일은 없었다. 아무리 가혹한 반대에 부딪혀도 그는 후퇴하는 일은 없었다. 이것은 그의 은혜의 넉넉함에서 나왔다. 그 은혜의 넉넉함으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잔혹한 중상과 모략을 이겨냈다. 우리도 만약에 이같은 넉넉한 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자기에 대해 사람들이 오판을 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한분에게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4월1일(금)/고후 12:14~21

제목: 자기 자신을 줍시다.

바울은 조만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그 교회에
페는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돈’ 이 아니라 ‘사람’ 이었다(14절). 그는 ‘돈’ 아니라 그
들의 ‘인격’ 을 원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되는 오
해를 받았다. 그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사기꾼’ 이었다
(17~18절) 그래서 그는 자기의 청렴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
다(18~19절) 그리고 그는 조만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
때 자기를 실망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20절). 그리고 과거
에 부정한자들이 모두 다 참회하고 용서받은 상태에서 자기를
맞이하여줄 것을 부탁했다(21절). 여기서 바울은 기독교의 구제
의 원리를 규정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돈’ 이 아
니라 ‘그들 자신’ 이었다. 그는 돈이 아닌 그들 자신을 기부하
라고 하였다. 그렇다. 구제는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가장 안이한 방법은 돈만 주는 것이다. 물
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고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것이 100% 온전한 구제는 아니다. 진정한 구제는 물질 뿐 아니
라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준다는 말은 마음과 뜻
을 다하여 그 대상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는 뜻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